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영암 가꿔요”

영암군, 반려동물 관계자와 목요대화 통해 공감대 나눠 참석자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 영암군에 건의

영암군이 지난 3일 군서면의 한 카페에서 반려동물 관계자들과 28번째 목요대화를 열었다.

이날 대화에는 우승희 영암군수와 반려견·반려묘 생활인, 동물병원장, 유기동물보호소장, 반려동물 위탁관리자 등이 함께해 영암군의 반려동물 현황과 지원사업 등에 대해 들었다. 이어 참석자들은 반려견·반려묘와 함께하는 생활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유토론 시간에 참석자들은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

예방접종비 지원 △입양비 상향 등을 영암군에 건의했다.

나아가 한목소리로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좋은 지역사회 분위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생태·힐링 도시 영암의 큰 축의 하나는 사람과 동물이 서로 교감하며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잘 검토하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제78회 전국 남녀 종별 농구선수권대회 성료

영광군의 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와 보조체육관 등 관내 4개 실내체육관에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78회 전국 남녀 종별 농구선수권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로써 영광군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10회의 대회 중 7회의 전국 남녀 종별 농구선수권대회 개최 이력을 남겼다.

군은 전국 132개 팀 2,4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숙박 및 식당과 특산물 판매점, 주유소 등의 지역 상인들의 수익을 26억여 원으로 추산하였다. 최근 계속되는 전국 규모 대회는 지역 경제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 결과 ▲여자 일반부 - 사천시청 ▲대학부 - 단국대 ▲남자 고등부 - 용산고 ▲여자 고등부 - 온양여고 ▲남자 중등부 - 삼선중 ▲여자 중등부 - 온양여중 ▲남자 초등부 - 대구철곡초 ▲여자 초등부 - 성남수정초 ▲남자 클럽부 - 거제시 공공스포츠클럽 ▲남자3x3 - 당진시 농구협회 등 2023년 전국 종별 농구 최강자가 가려졌다.

한편, 영광스포티움 축구 전용구장과 보조구장에서는 8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3 전국 하계 초등부 축구 리그가 진행되고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합평군, 폭염 대비 농작물 관리 철저 당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 영농 현장 기술지원에 주력”

합평군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농작물 피해 및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장마 기간 이후 폭염이 시작되면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급증하므로 시설작물은 물론 노지채소와 과수, 논농 등

전반적인 병해충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벼는 논물을 깊게 관수하여 식물체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규산과 칼륨을 시비한다.

밭작물은 짚, 부직포, 비닐 등을 이용해 토양

을 덮어 수분 증발을 방지하거나 스프링클러를 활용해 온도 상승을 억제한다.

시설재배 작물은 햇빛이 강한 시간대 때 차광막을 닫아 작물이 시들지 않도록 하고 안개분무(포그)와 환기팬 등을 적극 활용해 온도를 낮춰야 한다.

과수의 경우 햇볕데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세살수 장치와 차광망 등을 이용해 고온기에도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여름철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17시 사이에는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안전을 위해 혼자 작업하는 것은 지양하고 2인 1조로 움직여야 한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장마 이후 폭염으로 인해 농작물의 품질 저하와 농작물 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농작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영농 현장 기술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합평=김광훈기자

목포시, 미등록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9월30일까지

목포시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려견 등록 및 변경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10월 한달간 집중 단속 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견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고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서 외장형으로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사항(소유자 변경, 반려견의 상태 등)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고, 반려견 등록 시 내장칩 삽입에 한해 등록비용 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무안군, 무안군사 편찬사업 군민설명회 개최



무안군은 지난 3일 무안 승탑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무안군사 편찬위원회 및 원고 집필진을 비롯해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사 편찬사업 군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무안군사 편찬사업은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자료수집, 집필, 간행 등을 연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 자료수집, 원고집필 등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앞으로 무안군사 원고 공람, 발간 및 배부 등의 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에 편찬되는 무안군사는 후손들에게 사료로 소중한 활용되도록 편찬위원회 및 원고집필진 등과 함께 노력해 왔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향후 주민 공람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 사항에 대해 아낌없이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 ‘여성 취·창업교실 개강’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안미영)는 지난 7월 31일, 신안군농산물가공센터(2층 교육장)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창업교실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교육생 24명이 참여하는 이번 취·창업교실은 출산·육아·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안 특산물 디저트 만들기 특별과정으로 준비하였다.

안미영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여성들이 취·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에 맞고 특색있는 직종을 발굴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